

2006 한국농업최고경영자대회 축하 메시지

농업최고경영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과 한국농업CEO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의 물결은 거세지고, 농촌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저와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방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수준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농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련한 대책들도 올해 중에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농촌의 활력도 되살리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연계해서 농촌 공간을 다양하게 가꾸고,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도시민과 은퇴한 분들이 돌아

와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여건과 교육·의료 등 복지수준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혁신적인 사고와 남다른 노력으로 하나하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사 1촌' 운동과 같은 농촌사랑운동도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